

광주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 풍성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5곳
광주여성필·그린발레단 등
상주단체 선정 정기 공연
오케스트라·발레·연극...
광주 곳곳 다양한 볼거리

광주지역 공공 공연장인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산문화예술회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북구청소년수련관, 서구문화센터에서 창작·공연활동을 할 '공연장 상주단체'가 최근 선정됐다. 올해도 오케스트라, 발레·현대무용단, 극단 등 지역 공연단체가 펼치는 다양한 무대를 광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올해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광주여성필하모닉(대표 김유정)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공연을 각각 5차례에 걸쳐 만난다. 이들은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우수 레퍼토리 공연, 창작공연, 기획공연 등을 열 계획이다.

광주여성필하모닉은 5월16일 '더 클래식'으로 올해 첫 무대를 열고 창작 작품들을 선보이는 하우스콘서트(6월22일)를 연다. 오는 8월24일에는 지난해 광주를 찾아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마친 피아니스트 김정원(44)과 협연 무대를 갖는다. '2019 한국지휘자협회 지휘 캠프' 최우수지휘자로 선정된 여성지휘자 박승유(33)는 2차례에 걸친 광주여성필 공연의 지휘봉을 잡는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오는 6월7일 '24회 전국무용제' 금상과 '24회 광주무용제' 대상을 받은 '베를린'으로 관객을 맞는다. 채훈화씨가 안무를 맡은 이 작품은 소비가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풍요와 쾌락,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몸짓으로 풀어냈다. 이튿날에는 '차세대 안무가 전'을 선보이고 오는 11월1일 '5월, 무등의 판타지'를 초연한다. 문의 062-670-7931.



광주 5개 공공 공연장은 한 해 동안 상주단체를 선정해 정기 공연을 선보인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광주여성필하모닉'의 공연 모습. <광주여성필하모닉 제공>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르는 상주단체는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과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대표 김양균)이다.

2010년 창단한 뒤 매년 새로운 기획을 추진해온 그린발레단은 미디어아트와 영화에 착안한 다채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발레 인 시네마Ⅱ' (7월13일), 차세대작가전 '트리니티Ⅶ' (8월17일), '발레 살롱Ⅲ' (9월25일)으로 무대를 채우고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와 존 밀턴의 시 '잃어버린 낙원'을 소재로 한 '실낙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11월9일 초연한다. 이와 더불어 광산구 어린이 20명에게 무료로 발레 강연을 하는 퍼블릭 프로그램 '쁘띠 발레리나'를 오는 5월10일~7월16일 진행한다.

한국의 전통 농악문화를 계승하는 '얼쑤'는 레퍼토리 공연 '락의로' (5월11일)와 '타.타.타' (6월25일)를 공연하고 창작 공연 '뿌리깊은 나무' (6월22일), '소리공장' (12월6일)의 첫 무대를 갖는다. 얼쑤 역시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문화나눔 얼쑤-지희자'를 마련했다. 문의 062-960-8861.

이외 (사)선율의 '아르스팔하모니와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남구문화회관), 극단 아트컴퍼니원의 '연극으로 고고'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상마루공연장), 극단 논다의 'UP대 UP' (서구문화센터)이 한 해 동안 문화성찬을 차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란·해바라기·장미 '꽃의 향연'

윤순실전 17일까지 강진아트홀

강진 출신 시인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모란을 통해 '찬란한 슬픔의 봄'을 노래했다.

강진에서 나고 자란 수채화가 윤순실 작가가 '모란피다' (17일까지)를 주제로 강진아트홀에서 초대전을 진행한다.

윤 작가는 다양한 색감의 자연스런 변질이 인상적인 수채화의 매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찬란한 봄', '봄은 오고' 등의 작품은 만개한 모란꽃의 아름다운 풍모를 묘사했다. 오묘한 색감의 모란꽃들은 저마다의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또 다른 작품 '환희'와 '충만'은 모란꽃을 든 채 나비와 함께 한 전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모습과 단아한 여성의 모습을 함께 배치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전시에서는 또 해바라기, 장미 등 다채로운 꽃의 향연을 만날 수 있으며 가을의 느낌을 담은 쓸쓸한 풍광 속에 자리한 '새'가 인상적인 '응시'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봄은 오고'

윤 작가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물빛 수채화'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무등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한국 수채화공모전 등에서 수상했다. 문의 061-430-397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찾아가는 영화관' 주민 참여 영상 제작

전남문화관광재단 9일까지 접수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9년 찾아가는 영화관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은 영화상영 37회, 문화나눔 41개 사업을 추진, 3190명이 관람했고 문화나눔으로 미술·음악 공연, 사진촬영, 네일아트 등을 함께 펼쳐 지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지역민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 제작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평가회 결과를 반영해 준비한 기획으로 어르신들이 장시간 관람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영상제작은 주민을 주인공으로 마을의 전경, 삶의 이야기 등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상영회 자리를 마련해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신청 접수 마감은 오는 9일까지다. 문의 061-280-58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권정생 그림책 '사과나무밭 달님' 불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 수상



'권정생 문학 그림책' 시리즈 세 번째 권인 '사과나무밭 달님' (도서출판 창비·사진)이 2019년 불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 상(픽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권정생(1937~2007)의 작품이 해외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불로냐 아동도서전은 올해로 56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어린이책 행사로 올해 라가치 상에는 총 43개국에서 1558종의 작품이 출품됐다. 라가치 상은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책 중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인 디자인이 뛰어난 책에 수여하는 어린이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아동출판계의 노벨문학상'으로도 불린다. 올해는 픽션과 논픽션을 비롯한 5개 분야에서 5편의 대상과 14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작품에 대해 "자연 풍경과 농촌의 노동을 구체적인 장면들로 그리면서 삶의 풍요와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사과나무밭 달님'은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필존이와 어머니 안간택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권정생 문학의 철학이 잘 녹아 있다.

한편 그림을 그린 윤미숙 작가는 지난 2004년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조호상 글, 웅진닷컴)로 픽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 작가는 올해 수상으로 불로냐 라가치 상 2관왕을 차지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트럼프 카드에 문 대통령 있다?

김병택전 6~30일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



'Ace of Sorrow-재클린 & 몬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트럼프 카드가 흥미로운 작품의 소재로 변신했다. 킹과 퀸이 자리하고 있던 공간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 인물들도 있고, 유쾌한 만화 캐릭터도 있다.

트럼프 카드를 프레임 삼아 동시대를 풍미한 유명인사를 등장시킨 인물화를 그려온 서양화가 김병택 작가 개인전이 6일부터 30일까지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관장 정희정) 갤러리에서 열린다.

'Ace of a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수환 추기경과 마더 테레사, 마릴린 몬로, 재클린 케네디, 찰리 채플린, 요셉 보이스 등 유명인물과 곰돌이 푸, 미키마우스 등 디즈니 캐릭터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작가는 팝아트풍의 작품에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을 정확히 드러내며 카드 안의 상징적 코드와 교묘하게 어우러진 주변 배경들에서 해학과 풍자를 느낄 수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등에서 작품 활동을 진행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중국 북경 Force 갤러리 초대전 등 1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북경 질주'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